

NEWS

MBC

MBC·세종시, 'MBC 세종 건립' 협약 체결



MBC와 세종특별자치시가 23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박성제 MBC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MBC 세종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칭 'MBC 세종'의 안정적 건립을 위한 협력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통합 문화기반 마련 노력 등이 핵심이다. 양 기관은 또 MBC 세종 건립을 통해 지역 기반 방송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스타트업을 비롯한 지역 문화산업 개발에도 뜻을 같이하기로 약속했다. MBC는 국회타운 등 개발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보다 구체적인 'MBC 세종' 건립 계획과 후보지를 제안할 예정이다.

MBC 집콕 콘서트 개최



MBC는 3월 1일, 8일, 15일 3차례에 걸쳐 밤 10시 40분에 '집콕콘서트'를 선보인다. 1일에는 이승환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 '무적전설'을 100분간 하이라이트 편집본으로 만나볼 수 있다. 8일에는 잔나비의 '판타스틱 올드패션드'와 '년센스2'의 하이라이트로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15일에는 총 50대의 카메라가 다양한 각도로 촬영한 서태지의 '콰이어트 나이트'를 안방 시청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CBS

오리지널 뉴스 오디오 콘텐츠 <뉴스5분>, FLO로 론칭



CBS는 오디오 플랫폼 FLO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오리지널 뉴스 오디오 콘텐츠 <뉴스5분>을 2월부터 FLO에 공개했다.

<뉴스5분>은 그날 하루 중요한 뉴스를 5분 동안 전하는 오디오 콘텐츠로 특히, MZ세대가 편하게 들을 수 있게 제작하여 FLO를 통해 단독 서비스된다. <뉴스5분>은 FLO APP 실행 후, '상황' 카테고리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아리랑국제방송

'아시안 탐밴드' 송출

글로벌 파워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아시안 탐밴드'가 글로벌 송출을 시작했다. '아시안 탐밴드'는 20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국제공동지원작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이다. 국가 간의 경계는 존재하지만 음악에 국경은 없다는 모토로 출발한 '아시안 탐밴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아시아인들에게 음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아시아 국가 간의 평화와 우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아시아 7개국 8개 방송사(몽골 EduTV, 베트남 HTV/MOV, 우즈베키스탄 Milliy TV, 인도네시아 RTV, 중국 저장방송그룹, 필리핀 TBN ASIA/CTS JOY필리핀, 대한민국 광주 MBC)가 모였다.

'아시안 탐밴드'는 2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 시간 기준 오후 11시 30분 각 방송국에서 방송되었으며, 국제방송 채널 아리랑TV를 통해서도 전 세계에 방송되었다.

YTN

2021년 YTN 신입사원 입사



2021년 2월 1일, YTN 신입사원 15명이 첫 출근을 했다. 이번 채용은 방송기자(5명), 촬영기자(3명), 방송기술(2명), 방송경영(2명), 시사PD(3명) 직군에서 모두 15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방송기술 직군에서는 김성재, 정승기 예비협회원이 합격하여 현재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TBS

미디어재단 TBS, 창립 1주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는 2월 17일 독립된 재단으로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TBS는 1주년을 축하하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기 위해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영화 등 특집 방송을 편성하였다. TBS는 그동안 함께해 온 시민들의 특별한 추억과 전문가의 증언,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TBS가 미디어재단을 출범하기까지의 역사를 생생하게 되돌아보고 앞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참여형 지역 공공미디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BS

2021년 EBS 신입사원 입사



지난 2021년 2월 15일, EBS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21명의 신입사원이 입사했다. 작년 10월부터 진행됐던 채용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원래 계획보다 채용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입사하게 되었고, 신입사원 연수를 시작으로 뉴노멀 시대를 이끌어 갈 방송인이 되기 위한 예열을 마쳤다. 이번 채용에서는 3명의 신입 엔지니어와 AR 경력 엔지니어 1명이 입사하면서 실감미디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미국 '2021 SXSW'서 VR 콘텐츠 'POISON' 공식 초청



EBS에서 제작한 VR 콘텐츠 'POISON'(포이즌)이 세계 최대 IT·엔터테인먼트 축제 '2021 South by Southwest(SXSW)'의 가상

영화(Virtual Cinema) 섹션에 초청됐다.

SXSW는 1987년 시작돼 매년 3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행사로, 오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약 5일간 다양한 컨퍼런스와 영화 상영 및 전시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POISON'은 고품격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EBS가 VR로 선보이는 과학 콘텐츠로 'POISON'의 이용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된다.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인간 몸에 침투하여 인간을 감염시키는 경로를 체험하는 실감형 콘텐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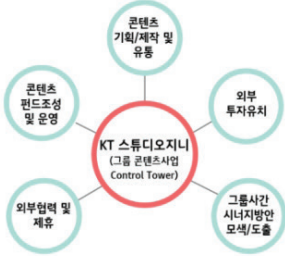
KT그룹

콘텐츠 전문 기업 KT 스튜디오지니 설립

[KT그룹 미디어콘텐츠 사업 현황]

구분	회사명	사업내용
플랫폼(IPTV)	KT(올레tv)	iptv사업자
플랫폼(Satellite)	KT SkyLife	위성방송사업자
플랫폼(OTT)	KT(Seezn)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음원)	지니뮤직	음원 서비스 및 음원 유통
원천IP	Storywiz	웹소설/웹툰 제작, 유통 및 플랫폼 운영
콘텐츠 제작	skyTV	방송 프로그램 공급, 콘텐츠 제작
콘텐츠 유통	KTH	T커머스, 콘텐츠 유통
광고	나스미디어	광고출력 제공, 광고대행 및 광고매체 판매
광고	PlayD	디지털 광고대행업

[KT 스튜디오지니 역할]



KT가 그룹 내 미디어 콘텐츠 역량을 결집해 투자 및 기획, 제작, 유통까지 아우르는 콘텐츠 전문 기업 ‘KT 스튜디오지니’를 설립한다. 신설 법인 KT 스튜디오지니는 KT그룹이 보유한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역량 간 시너지를 도모하고, 그룹 콘텐츠 사업을 총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KT는 IPTV인 ‘올레tv’를 비롯해 위성방송 ‘KT 스카이라이프’, OTT 서비스 ‘시즌’, 음원 유통 플랫폼 ‘지니뮤직’, 웹소설·웹툰 플랫폼 ‘스토리위즈’ 등 다양한 미디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KT는 막강한 가입자 기반의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사업을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KT의 미디어 플랫폼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259만 명에 달한다. 특히 KT의 웹소설·웹툰 전문 자회사 스토리위즈를 통해 발굴한 원천 지적재산(IP)을 중심으로 국내 유수의 제작사와 협업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도 속도를 낸다. KT 스튜디오지니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위해 펀드 조성 및 외부 자금 유치로 2023년까지 ‘대형 오리지널 콘텐츠’를 연 10~20개 시리즈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T는 이렇게 제작·확보한 콘텐츠를 그룹 내 플랫폼을 통해 유통해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초대 대표이사로는 스카이라이프에서 콘텐츠본부장을 역임한 KT그룹 내 콘텐츠 전문가인 윤용필 사장이 내정됐다. 향후 외부에서 콘텐츠 전문가를 영입해 공동대표로 선임할 계획이다.

KBS

KBS 홈페이지 전면 개편



KBS가 홈페이지(www.kbs.co.kr)를 전면 개편했다. KBS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폭넓은 연령층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의 공격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홈페이지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단 메뉴 단순화/공적 서비스 영역 추가 (장애인 서비스, 13개국 언어 지원)
- TV 온에어 영역 미리보기 영상 제공/RADIO 온에어 신설
- 콘텐츠 큐레이션을 통한 동영상 콘텐츠 강화
- 큐레이션관 ‘뮤직’, ‘스타연예’, ‘트렌드’, ‘KBS 소식’ 코너 신설
- KBS 유튜브 인기 채널 바로가기 신설
- 라이트·다크 모드 적용

방송통신위원회

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4월 1일까지 응모 접수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계획을 확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은 방송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국

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 및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다.

올해 방송대상에는 기존 '사회 통합' 부문과 '문화 다양성' 부문을 '사회·문화 발전' 부문으로 통합하고,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 활성화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웹·앱 콘텐츠' 부문을 신설했다. 이외 창의혁신, 한류확산, 지역발전 부문에서 우수상을 시상하며 각 6백만 원씩 8개의 작품이 시상된다. 이중 대상과 최우수상에는 1점씩 2천만 원과 1천2백만 원의 시상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공로상 부문에서 기획, 제작, 편성, 기술 분야 등에서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하거나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등에서 사회공헌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시상된다.

'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 응모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방송사 등은 2021. 2. 9.(화)부터 4. 1.(목)까지 출품서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등기우편발송(3.30.(화) 소인까지 유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응모 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전면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

지상파 방송광고매출 감소로 인한 결합대상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액 동반 감소 및 광고주의 결합판매 기피 등으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책인 결합판매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20.5.)되었고 광고주, 지상파, 국회 등에서도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하에 결합판매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건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

작년에 진행한 결합판매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합판매제도의 성과와 한계,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국회, 광고주 등의 외부 지적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대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논의 주제별, 쟁점별로 집중검토를 실시하고, 필요시 해커톤 방식의 끝장토론 등을 통해 현재의 합헌, 불합치, 위헌 등 판결 결과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로 제도개선안 및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2월 17일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반의 운영취지, 연구내용,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사항 등을 협의했다.

SBS

비대면 온라인 제작시스템 구축



SBS는 비대면 콘서트 공연 방식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제작 지원을 위해, SBS 상암동 공개홀 및 본사 디지털 스튜디오(DS-1) 내 비대면 온라인 제작시스템 설치 작업을 진행하였다. 해당 작업은 기술국 내 디지털 뉴미디어 플랫폼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작년 1월 초에 출범한 '디지털 콘텐츠 기술솔루션 T/F'가 담당하였으며, T/F팀 하태운 팀장은 "코로나 여파에 따른 '트롯신이 떴다'의 첫 비대면 콘서트 제작 이후 필요 시 마다 구성했던 임시 제작시설을 정규시설로 구축하고 제작 노하우를 내재화할 필요가 있어 작업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스튜디오 제작 시, 시청자(참여자)가 등장하는 스튜디오 내 LED 화면과 시청자 화면을 송수신하는 PC 장비의 신호를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도록 이동형 시스템으로 제작하였으며, 시청자의 오디오 신호를 별도로 부조정실로 전달하여 관객과 가수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다.